

## 2011년 투르크메니스탄 에너지자원 매장량 및 수출 증가

소속 및 직책: 산은경제연구소 국제경제팀 연구위원

성명: 강 명 구

### □ 영국의 Gaffney과 Cline & Associates에 따르면,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와 원유 매장량이 5년 전에 비해 1.5배 증가했다고 발표

- 영국의 Gaffney과 Cline & Associates는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예상매장량은 44조 2,500억 $m^3$ 이며, 확인매장량은 25조 1,300억 $m^3$ , 원유의 예상매장량은 87억 톤으로 발표
  - 천연가스는 예상매장량 기준으로는 세계 1위인 러시아, 확인매장량 기준으로는 세계 3위인 사우디아라비아와 비슷한 수준
  - 원유는 세계 7위 수준으로 중앙아시아 최대 매장량을 가진 카자흐스탄(확인 매장량 55억 톤)보다 약 22억 톤이 많은 수준
- Gaffney, Cline & Associates에 의하면 투르크메니스탄의 예상매장량의 약 1/2인 21조 $m^3$ 는 남 이올레탄지역에 매장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으며, 적어도 13조 $m^3$ 가 매장된 것으로 평가
  - 2010년 12월 31일 러시아 가즈프롬(Gazprom)의 평가에 의하면, 남 이올레탄 지역에 추정매장량은 약 19조 발표

### BP의 투르크메니스탄 천연가스 및 원유 현황

| 구 분  | 매장량        | 세계 대비 비중 | R/P Ratio |
|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|
| 천연가스 | 8.0조 $m^3$ | 4.3%     | *         |
| 원 유  | 0.6억 톤     | ◆        | 7.6       |

주: \*는 100년 이상, ◆는 0.05% 이하

자료: BP, 'BP Statistical Review of World Energy', June 2011

### □ 2011년 투르크메니스탄 천연가스 생산량 및 수출량 급증

- 2011년 12월 3일 에너지자원 관계 장관회의에서 석유가스부문 부수상 바이르라트 호자무함메도프의 발표에 의하면, 2011년 1월~11월 투르크메니스탄의 천연가스 생산은 42.5%, 수출은 75.2% 증가
  - 2011년 1월~11월 원유 및 가스컨덴사트의 생산량은 2010년 동기에 비해

7.9% 증가

-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천연가스의 수출 증가를 위해 신규 유전 및 가스전 개발, 수송인프라, 천연가스 및 원유 생산단지의 현대화 등을 추진 중
- 투르크메니스탄 정부는 수출 증가를 위해 2011년 12월 13일 레바주에 중국 수출용 가스공을 위한 대형 가스공장 건설을 위한 기공식을 개최할 예정
- 2011년 11월 23일 투르크메니스탄 대통령의 북경 방문시 대중국 천연가스 연간 공급량을 650억㎥까지 확대하기로 협의
- 또한 투르크메니스탄은 인도 방향으로 천연가스 수출을 위해 1,680km의 TAPI(투르크메니스탄-아프가니스탄-파키스탄-인도) 건설을 위한 컨소시엄 결성

□ 우리 정부의 對중앙아시아 자원외교의 방향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.

- 현재까지 카자흐스탄, 우즈베키스탄에 치중되어 있던 우리나라의 중앙아시아 자원외교에서 벗어나, 세계 4위의 천연가스를 보유한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자원외교가 필요함.
- 지금까지 투르크메니스탄에 대한 한·투르크메니스탄 정상간 교류는 카자흐스탄·우즈베키스탄에 비해 적었으나, 향후 정상간 국빈 방문을 통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에너지자원의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.
- 중국의 경우에는 정상간 국빈방문을 통해 에너지자원에 대한 적극적 확보에 나서고 있음.

원문자료

1. Туркменистан повысил оценку запасов газа и нефти в полтора раза
2. В Турменистане объемы добычи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увеличились на 42,5%, а его экспорт вырос на 75,2%

참고자료

<http://www.ca-news.org>